“음악이 있고 삶이 즐겁다면 인생은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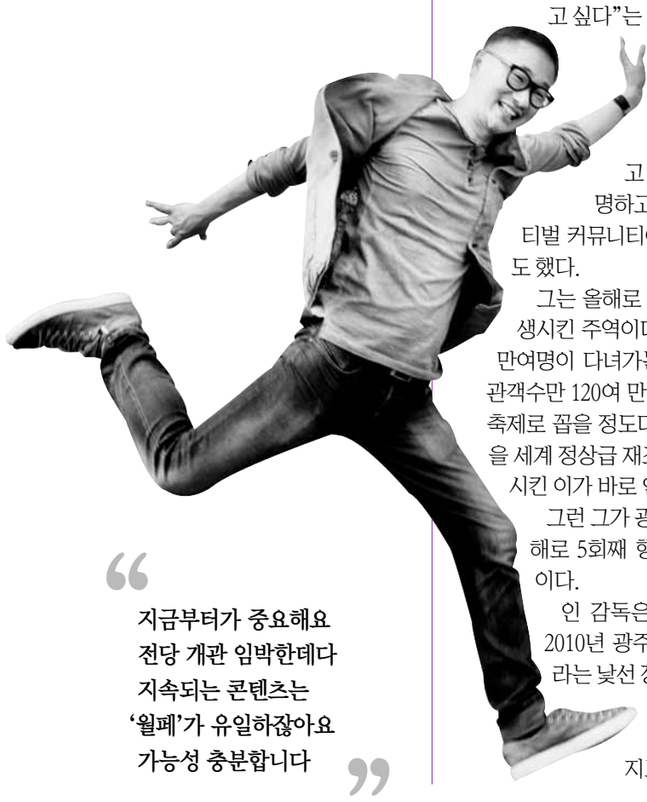
컬쳐 & 피플

공연 기획자 인재진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탄생시킨 흥행 감독
“문화전당서 열린 ‘월페’ 제자리 찾은 느낌
관객 만족도 높아 자라섬 능가하는 축제 될 것”

해질 무렵 간식거리를 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드넓은 잔디광장이 축제를 즐기러 온 시민들로 가득 찼다. 이들은 맨발로 잔디를 밟고 앉거나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음악을 ‘제대로’ 즐겼다.

지난 29~30일 열린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이 열린 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옥상 잔디공원의 모습이다. “공연을 관람하러 온 관객이 아닌, 공연을 찾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축제에 스며들게 하고 싶다”는 인재진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감독의 바람이 제대로 실현된 듯 했다.



재즈·월드뮤직 공연 기획자인 인 감독은 국내외 공연계에서는 꽤나 이름이 알려진 거물급 인사다. 어느 해외 재즈공연 관계자는 그를 두고 “의심할 여지없이 아시아 음악 산업에서 가장 유명하고 핵심적인 사람중 하나다. 전 세계 재즈와 페스티벌 커뮤니티에서 존경받고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을 탄생시킨 주역이다.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은 매년 국내외에서 17만여명이 다녀가는 아시아 최고의 음악축제다. 지난해까지 누적 관객수만 120여 만명으로, 재즈 마니아라면 누구나 꼭 가보고 싶은 축제로 꼽을 정도다.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된 경기 가평의 자라섬을 세계 정상급 재즈 아티스트들이 찾아오는 낭만적인 섬으로 변화시킨 이가 바로 인 감독이다.

그런 그가 광주에도 이에 버금가는 문화축제를 만들었다. 올해로 5회째 행사를 치른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이하 월페)이다.

인 감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 추진단의 요청으로 2010년 광주에서 제1회 축제를 열었다. 월페는 월드뮤직이라는 낯선 장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광주의 대표적인 음악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어쩌면 몇 년후에는 자라섬을 능가하는 축제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전당 개관 임박한데다 지속되는 콘텐츠는 ‘월페’가 유일하잖아요 가능성 충분합니다”

올해 축제가 시작되기 전 만난 인 감독은 꽤나 자신있는 모습이었다. 그동안 해마다 장소가 변경되면서 치러진 축제에 아쉬워했지만 올해 드디어 제집으로 돌아온 느낌이기 때문이다.

“지나간 시간에 비해 아직 어수선한점도 남아 있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동안 해마다 장소가 바뀌면서 축제가 치러진 점은 안타까워요. 축제는 지역성이 중요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올해부터 전당에서 진행되는만큼 지금보다는 더 큰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전당 개관도 임박한데다 대외적으로 드러나면서 지속돼가는 콘텐츠는 월페가 유일하잖아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축제를 즐기러 오는 시민들의 모습에서도 그는 가능성을 엿봤다고 한다. 축제를 보러오는 관객들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음을 몸소 느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음악 축제’라는 이미지나 경험치가 있잖아요. 실제로 광주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런 경험치가 별로 없었던 거지요. 잔디밭에 편하게 앉아서 축제를 즐기고 익숙치 않은 월드뮤직을 접하게 되면서 처음에 생소하게 받아들였던 사람들도 언젠가부터 축제에 스며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실제 조사에서도 관객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재방문 의사도 높은 편이구요.”

인 감독은 월페에 ‘아시아 음악’ 게이트로서의 기능과 함께 해외 유명 연주자들과의 꾸준한 협업작업을 이어간다면 충분히 국제적인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재즈와 월드뮤직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인 감독은 한때 ‘흥행계의 마이너스 손’이라 불릴 정도로 힘든 시절이 있었다. 시작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았고 사람들의 눈에 자꾸 실패하는 인생으로 비춰졌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지난 날을 ‘찌글찌글한’ 인생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과거를 후회하거나 잊고 싶어하진 않는다.

“찌글찌글하게만 느껴졌던 지나온 순간들이 실제 빛나는 축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즐겁기만 하다면 모든 삶은 축제이기 때문이지요.”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씨와 결혼하며 재즈 부부로 불리는 인 감독은 10년후 지금과는 또 다름 삶을 꿈꾸고 있다.

“새로운 문화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자연에 가까운 음악공간이죠. 다양한 젊은 예술가들이 찾아와 숙박도 하고 공연도 하는 거죠. 무대도 만들고 식당도 있을 거에요. 음악이 있는 인생을 즐기며 지내고 싶어요. 조금씩 준비해가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공연기획을 계속 해가야죠.”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저항의 날갯짓

2014광주비엔날레 개막식 4일 오후 6시 열린다

‘무용수들이 동서양 음악에 맞춰 펼치는 저항의 날갯짓.’

‘터전을 불태우라’를 주제로 열리는 2014광주비엔날레(5일~11월9일) 개막식이 4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광주비엔날레재단 광장에서 열린다.

올해 행사에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장현 광주시장, 이용우 대표이사, 제시카 모건 총감독 등을 비롯해 시민과 국내·외 문화계 인사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막행사는 사전행사, 식전행사, 공식행사, 개관행사로 나뉜다.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사전 행사는 시민 2000명분의 음식을 나눠먹는 ‘식(食)’ 퍼포먼스로 진행된다. 또 한쪽에서는 판굿과 비보이들의 공연이 어우러진 무대가 연출된다.

이어 공식행사는 오후 7시30분부터 KBS 임정섭 아나운서와 방송인 애나벨 앰브로스의 사회로 진행된다. 축사에 이어 정우성 명예홍보대사 위촉식이 열린다.

음악과 영상, 불꽃을 활용한 3막으로 구성된 주제 공연 ‘버닝 다운 더 하우스’는 복합 퍼포먼스 형식으로 선보인다. 무대는 가로, 세로 1.8m 크기의 큐브 50개를 가로 10개, 세로 5개씩을 배열해 구성했다. 무대에서는 대금 등 전통 악기가 연주되고, 큐브 안에서는 6명의 무용수가 저항과 창조의 몸짓을 펼친다.

한편 이날 주제에 가장 잘 부합하는 작품을 출품한 작가에게 수여하는 ‘눈(Noon) 예술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된다. 문의 062-608-4224.

/김경인기자kki@kwangju.co.kr

‘보리피리’

송계 김용배가 쓴 한하운의 ‘보리피리’

15일까지 소록도병원 전시

“보리피리 불며/ 봄 언덕/ 고향 그리워/ 필 닐니리// 보리피리 불며/ 꽃 청산/ 어릴 때 그리워/ 피-ㄹ 닐니리…”(한하운 시인의 ‘보리피리’ 중)

서예가 송계 김용배씨가 한센병을 앓았던 시인 한하운의 작품을 붓으로 재해석했다. 전시는 15일까지 ‘어찌하여 구름이었던가’를 주제로 한센병 환우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국립소록도병원 본관 1층에서 열린다. 전시에는 한하운 시인의 시를 옮긴 42점을 비롯해 모두 70여 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작가는 우연히 소록도에 들렸다가 그들의 아픔을 달래줄 방법을 찾던 중 한하운 시인의 작품을 만났다. 그리고 그의 한 맺힌 울음소리를 가슴 깊이 새겼다.

김씨의 작품에서는 한 시인의 슬픔과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비오는 길에’는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다. ‘파랑새’와 ‘보리피리’ 등 한 시인의 잘 알려진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작가는 “전시가 끝나고 작품은 모두 기증할 예정”이라며 “내년 5월17일 한센병 환우들과 가족이 만나는 축제의 날에 또 한번 전시를 기획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1991년 전북미술대전 대상을 비롯한 1994년과 2006년 전국공무원미술대전 대상, 1995년 대한민국서예대전 최우수상을 받았다. 문의 061-840-0500.

/김경인기자kki@kwangju.co.kr